



혜경스님의 경전읽기

법화경 ⑧ 제9 수학무학인기품

아난다의 사적(事跡)

아난다는 수도다나(淨飯)왕의 동생 아브리타(甘露)왕의 아들로 석존의 4촌 동생에 해당하며 테바닷타(提婆達多)의 동생이기도 하다. 석존께서 성도한 후에 처음으로 카필라바스투(迦毘羅衛城)에 돌아갔을 때 출가하여 제자가 되었으며, 그 후 사리푸트라(舍利弗)와 마우드가리아아나(目連)의 추천으로 항상 부처님을 모시고 따르는 사자(侍者)가 되어 20여 년 동안 한시도 결을 떠나지 않고 정성껏 섬겼다.

그는 훌륭한 기억력을 가져 석존의 설법을 정확히 기억하고 있었다. 그리하여 교단 가운데 '다문제일(多聞第一)'이라 불렸으며 부처님께서 멸도하신 후 제1회 결집 때, 법(法) 즉 경전의 송출자(誦出者)로 선출되었다.

아난다는 매우 선량하고 온순하여 마음이 약한 데가 있었다. 그렇지만 석존에 대한 충직함은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는 정사(精舍)의 문밖에 겨우 당도했을 때는 모두 피로에 지쳐서 쓰러질 정도였다. 이 소식을 듣고 사자인 아난다가 나와 보았더니 고타미를 비롯하여 많은 부인들이 완전히 변한 모습으로 있지 않느냐. 깜짝 놀란 그가 사유를 묻자 불도에 들어갈 결심으로 여기까지 왔노라고 대답하는 것이었다.

아난다가 즉시 석존에게 이 사실을 고하자 석존께서는 "아난다여, 여인이 얽힌 계를 아래서 도를 두는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포기하도록 설득하라"고 말씀하셨다. 그러나 아난다는 선뜻 승복하지 않았다. "말씀을 거역하는 것 같지만 그렇다면 세존의 가르침은 남자에게만 문을 열고 여자에게는 닫는다는 것입니까?" "아니 그렇지 않다. 진리라는 것은 인간계든 천상계든, 어디서나 진리이거늘 하물며 남녀의 차별 따위는 없다. 그렇지만 교단에

기억력 탁월, 설법 정확히 전수

여성출가 허용 간청...비구니 탄생

않았으니, 테바닷타가 코끼리에게 술을 먹여 석존을 해치려고 했을 때에도 다른 비구들은 모두 도망쳤지만 아난다 혼자만은 결을 떠나지 않았다고 한다.

석존께서 성도하신 지 5년 후, 수도다나왕이 천수를 다하였다. 석존께서는 장례를 위해 카필라바스투에 갔었다. 그런데 석존의 이모로 석존을 암묵한 고타미(摩訶波 提婆)는, 앞서 친아들인 난타(難陀)와 손자인 라훌라(羅)를 출가하고 또 남편인 대왕도 돌아가시고 보니 점점 세상의 덧없음을 느끼고 있었기에 석존께 출가를 말씀드렸다. 그러나 석존께서는 허락하지 않았다. 석존께서는 바이사리(毘舍鞠)를 향해 출발했다. 출전에 남게 된 고타미는 아무래도 출가의 뜻을 버릴 수 없었으므로 그 뒤를 따라갈 것을 결심했다. 그러자 남편들의 출가에 의해 같은 생각을 품고 있던 많은 부인들도 고타미와 동행하겠다고 말했다.

부인들은 일제히 검은머리를 풀어내고 귀를 풀고 옷을 갈아입고, 손에는 한 개의 허투를 들고 맨발로 카필라바스투를 떠났다. 그리하여 석존이 계

여자가 들어오면 교단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다. 그러므로 출가를 허락하지 않는 것이다."

그러나 그는 "세존이시여, 가르침의 문이 남녀의 어느 쪽에도 열려 있다고 하면 여인의 출가를 막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출가를 허락해 주십시오"하고 간청하였다. 아난다의 말에는 무리가 없었다. 원래부터 석존께서도 인정 많은 분이였으므로 드디어 아무런 말없이 허락하게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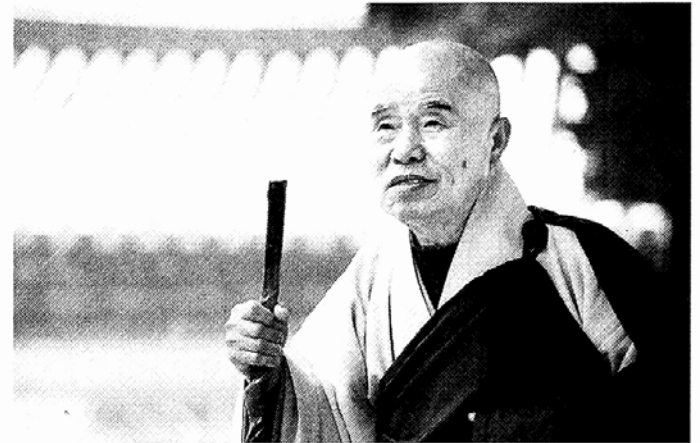
제1결집 직전에 마하카사파는 다섯 가지의 허물을 들어 아난다를 결집회의에서 제외할 일도 있었다. 그 허물 중에 '여인의 출가를 억지로 세존께 간청한 것', '세존의 유체(遺體)를 맨 먼저 여인에게 예배시킨 것' 등 여인에 관한 조항이 두 개나 있는 것은 자못 아난다다운 것이었다. 그러나 그 온화한 인품과 훌륭한 교학과 설법의 교묘함은 비구니 교단이나 재가 신도뿐만 아니라 차츰 교단 사람들의 신뢰를 얻게 되었으니, 마하카사파가 입적할 때에는 어느덧 교단 제일의 실력자가 되어 있었던 것이다. ■무실경사 조실

계율은 잡념·망상 견지는 지렛대



가까이서 뵈 큰스님

도견스님 (금성사 조실)



◇계를 철저히 지켜 수행자라고 항상 강조하는 도견스님은 생활속에서 수행과 근검절약을 실천하여 후학들의 존경이 높다.

"스님 진눈깨비도 내리는데, 어디를 다녀오세요?"

"눈이 땅에 떨어지면서 물이 되요"라고 선문답하시며 아침마다 1시간씩 인근 암자까지 포행을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날씨가 쌀쌀하고 길도 미끄러운데 힘드시지 않느냐는 질문에 스님은 '허' 웃으시며 "一切有爲法(일체유위법)이 如夢幻泡影(여몽환포영)이요 如露亦如電(여로역여전)이면 應作如是觀(응작여시관)이라"고 금강경(金剛經) 사

생각과 생각의 사이에도 꿈(夢), 헛것(幻), 물거품(泡), 그림자(影), 이슬(露), 번개(電)처럼 멈춤이 없이 변화하는 것을 보라는 말씀일 것이다.

잠깐 莊子(장자)가 꿈에 나비가 되어 즐겁게 놀았다는 '장주지몽(莊周之夢)'을 생각했다. 장자는 꿈속의 나비가 나인지 내가 나비인지를 고민하며, 현실도 삶도 죽음도 구별이 없는 세계를 얘기했다. 우리가 보고 생각하는 것도 한낱 만물의 변화 상에 불과한 것이라는 현상과 자아의 구별



◇매일 아침이면 1시간씩 산배자를 포행하는 도견스님.

"모든 현상이
꿈·그림자·이슬
번갯불 같으니
변치않는 진리를
바로 보아야 한다"

도견스님은?

몸에 밴 근검절약... 불자들에게 금강경 보시

도견스님은 1925년 인천시 강화군 화전면 부곡리에서 태어났다. 1944년 오대산 동관암에서 지월스님을 은사로 득도했으며, 45년 오대산 상원사에서 한일스님을 계사로 사미계를 받고 3년간 교학에 정진했다.

스님은 이후 해인사와 순천 송광사, 선산 도리사, 부산 범어사 등 전국 각지의 선방에서 수행했다.

평생 공부에만 전념해온 스님은 80년대 중반 중앙종회의원과 해인사 주지를 역임했으며, 조계종 원로의원을 지냈다. 스님은 항상 계를 철저히 지키며 정진을 뒤야 후학들의 모범이 되고 있

다. 생활 속에서 근검절약을 생활화하는 것으로 유명하다.

특히 스님은 수행자가 <금강경>을 통달하는 것이 그 첫째라며 찾아오는 불자들에게 금강경을 보시하는 것으로 유명하다.

사과, 해란 스님(진주 은석사 주지)은 "은사스님은 평소 상좌들을 엄하게 경책하시며, 참선 상좌들에게는 화두를 주고 점검하는 것은 물론 포교하는 상좌에게는 법문을 들려 주신다"며 "계를 항상 수지할 것을 강조하여, 약간의 흐트러짐만 보일 경우 곧바로 참회정진을 명하신다"고 말했다.

내본성 찾아내는것이 성불 화두가 일념되어야 깨달아

구계(四句闕)를 읊으신다.

스님은 "모든 현상이 꿈, 그림자, 이슬, 번갯불과 같으니 변치 않는 진리를 바로 보아야 한다."고 말씀하시며 방으로 들어가셨다.

<대비파사론(大毘婆沙論)>에는 하루 24시간 동안에도 64억 9만 9천 800할나에 오온(일체유위법)의 변화가 있고, 이 세상의 모든 사물은 실체가 없으므로 항상 변화 중에 존재한다고 설한다. 참나와 참나 즉

도 본래 없는 것이라는 사실에 대한 투철한 자각, 그것이 곧 깨달음이 아닐까.

도견스님의 방에는 금강경 관련 서적이 빼빼하게 꽂혀있었다. 최근에는 아예 부처님 마음자리를 밭을 이해하고, 따르라는 뜻에서 <금강경> 책을 1천여 권 제작하여 해인율원 스님들과 찾아오는 수행자, 재가 불자들에게 나눠주고 계셨다.

내친김에 금강경의 핵심을 일러달라고 청했다. 스님은 중국 천하에 선의 불길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채용 공고

대한불교조계종 화방사 화방복지원 공고 제2002-01호

사회복지법인 대한불교조계종 제13교구 쌍계사 말사 화방사 화방복지원에서는 2002년 5월 노인복지시설 화방동산 개원을 앞두고 유능한 인재를 선발코자 합니다. 어르신들을 친부모와 같이 모시고 헌신적으로 일할 자상하고 따뜻한 심성의 소유자를 선발코자 하니, 뜻있는 이들의 많은 접수를 기다립니다.

| 구분 | 채용인원 | 지원자격 |
|------------------------|--|-----------------------------------|
| 생활복지사 (사회복지사) | 1명 | 사회복지사 1급 자격증 소지자, 사회복지사 1년 이상 경력자 |
| 생활 지도원 | 10명 | 사회복지사, 간호조무사, 간호교육 수료자, 경력자 우대 |
| 축약 의사 | 1명 | 의사면허 소지자 / 경력자 |
| 간호사(1), 물리치료사(1) | 2명 | 유자격자 / 1년이상 경력자 |
| 영양사(1), 사무원(여.1) | 2명 | 유자격자/1년이상 경력자, PC자격증 소지자 |
| 조리원(1), 위생원(1), 관리원(1) | 3명 | 조리사, 세척관련 유경력자 우대 |
| 구비서류 | 응시원서와 화방복지원 소정양식, 이력서, 자기소개서,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주민등록증, 경력명세서(해당자), 자격증 사본 3지 | |

채용인원 및 지원자격 안내

■ 시험방법 : 1차 서류전형, 2차 면접시험

■ 일시접수 : 2002. 3. 18 ~ 3. 23 (우편접수시 23일까지 도착분)

■ 면접일자 : 2002. 4. 2. 오후 1시 -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해 개별통보

■ 합격발표 : 2002. 4. 8 (월) - 최종합격자 개별통보

■ 기타사항 : 가. 2002. 4. 15 ~ 5. 14까지 도내 우수 복지시설 견학 및 실습활동 실시하며, 2002. 5. 15일자로 정규직원으로 채용함.

나. 급여는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시설 보수규정에 준함. (속식 제공)

다. 응시원서(소정양식)는 전화연락시 우편 또는 이메일로 보내드립니다.

■ 주 소 : 경남 남해군 고현면 대곡리 1448 / 화방복지원 사무국

■ 문 의 : ☎ 055) 863-2286 / 이메일 : hwabang@kornet.net

대한불교조계종 제13교구 쌍계사 말사 화방사 화방복지원장

[금] 사찰안내



한겨울에도 푸르다 대웅보살

사문 노승은 25년 전에 비구승의 단신 몸으로써 오직 남북명화통일 기도와 서부전선 여러 부대 법당을 설립하고 군포교화동과 파주경찰서 조립식사무실을 설립하여 포교 활동을 하였으며, 또한 입진각 광장에서 10년간 법화경 일인 일자씩 사경기도와 분골 쇠신 할 정도로 포교활동을 하였습니다.

전진 부대 여러 사단장님, 참모님, 역대서장님들 여러 불자들이 서부전선에 호국승장이라 하였습니다. (신도는 500명 정도이고 축원카드를 보유 중) 병든 몸으로 밤낮으로 25년간 기도와 포교활동에 지쳐서 몸에 합병증이 생겨 현재 매일같이 병원을 찾고 있으니 꼭꼭 못한 몸으로써 노령의 몸이 되어서 장기간 병원에 입원을 요하게 되어 살고 있는 사찰을 인연있는 승려가 있으면 급히 의논을 하고자 합니다.

사찰은 15년 전에 지역사령관인 사단장께 대지 3천평을 사용승락서(사용땅은 1천평)를 받아서 해인사 용담선원에 모셔진 대석불 좌상존불을 운 고암 큰스님의 뜻으로써 통일을 위하여 이곳으로 모시고 대가람을 만들어서 살고 있습니다. 좌석불은 석굴암 부처님 못지 않은 부처님을 모시고 있으며, 35명의 큰방을 건립하기 위하여 적벽돌을 다 쌓아 놓고 있는 중인데 광전주 노승이 큰 병마가 생겨서 큰 병원에 입원하고자 하니 돈이 없고 25년전에 소승의 조상 봉제사돈 5억을 가지고 와서, 서부전선 포교활동과 절 건립을 돈을 다 써버리고 현재 돈이 없어 입원도 못해 급한 사정에 놓고 있습니다. 인연이 있는 스님이 계시면 1억 5천만 주시면 병원비와 방 한칸을 얻을 수 있는 힘이 되겠으니, 급한 안내 드립니다.(모든 의논이 가능합니다) 입진각 부근 철마는 달리고 산은 아담하고 앞으로 희망이 있는 곳이 분명합니다. 찾아 주시든지, 연락 바랍니다. (방광하신 좌석불의 가치가 대단함)

◆ 전화 : 031)952-7031 ◆ 휴대폰 011)9941-5818

◆ 주소 : 경기도 파주시 문산읍 마정 1리 117번지(임진강부근)

평화통일사 창건주 사문 윤 동암 합장

◆신도 회장을 비롯한 신도들의 뜻을 같이 하였습니다

제 1기 佛敎儀式 (범음·범패) 學人모집

한국불교범음회에서는 학인을 아래와 같이 모집합니다.

| | |
|--------------|---|
| · 초급과정 (3개월) | 사물(목탁, 요령, 태징, 범고) 다루는 법, 도량식, 쇠승, 상단예불, 불공시식 등 |
| · 중급과정 (3개월) | 상주권공, 대령관공, 신중작법, 지장청관음시식, 다비식 등 (기초범음, 범패) |
| · 고급과정 (6개월) | 요잡바라, 천수바라, 작법(나비춤), 사십구제, 예수제, 수록제 (전문 범음, 범패) |

● 모집인원 : 00명 (선착순)

● 개강일시 : 2002년 4월 22일 (음 3월 10일) 오후 2시

● 매주 강의 요일 : 수, 목 (오후 5시 - 7시)

● 제출서류 : 입학원서 1통, 주민등록등본 1통, 반영명판 사진 3매

※ 본원은 조종파 교육도량으로서 수료증을 수여하며, 초심자라도 여법하게 불교의 전통의식을 봉행 할 수 있도록 지도합니다.

※ 전화·서신 문의하면 안내서를 보내드립니다.

부산광역시 동래구 온천동 원광사 회장경 강주 김도진 화상

사무실 051)554-1518

회 장 011)864-1518

총 무 011)816-3909, 054)372-3639

한국불교범음회 의식교육원